

인권홀릭 ELOOM'S PICK 성/매/매/여/성/비/범/죄/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성구매, 알선자를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년후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5년의 시간동안 법이 했던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우리는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우리의 현재는 안심해도 좋을만큼 여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지..
이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9월 23일,
평등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 길위에서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이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 무엇으로 처벌하나? . 에디터 .. 비누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의 자기모순이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러온 사회적 차별입니다.

가해자도 착취자도 아닌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로 인한 특권을 유지하려는 소수권력자들의 지배욕구를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성적, 도덕적 관념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덕적인 잣대 '만으로' 개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화하고 성구매자를 비범죄자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구매자는 (특히 권력이 있을수록) 법적 처벌을 쉽게 피해갈 뿐 아니라 성구매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현저히 낮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에 대한 거꾸로 된 사회인식은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와 인권침해인 성매매를 일상적인 성관계로 인식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돈을 내고 사람을 때리는 거래가 있어서는 안되듯이 성구매를 합리화해서는 안됩니다.

지배적인 성매매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의 상식을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사회 여느 사회적 소수자, 약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이 박탈당해오면서 약자로 존재하도록 압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 자신을 배척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성매매여성비범죄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성매매여성에 대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도덕적 잣대와 편견으로 가하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의 시작이 되고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성매매여성에 법적 처벌로 인해 침해받는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매매 방지법 5주년, 인권을 에디트 하다 이지익 개!

Eloom style 이룸 스타일

STYLE ISSUE
플레이보이 스타일?

성구매자는 플레이보이?

성매매관련법 개정제안 대학교수,

성구매자를 부러워하여 논란 .에디터..보리

지난 2008년 6월 20일, 법무부 주최로 '형법개정 및 양벌규정개선'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성관련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한양대 법대 오영근 교수는 성구매자를 '플레이보이'에 비유하며, '플레이보이'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오영근 교수는 자료집에서 '예를 들어 성매매를 하는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플레이보이가 나쁜 사람, 그것도 국가의 최후의 제재수단인 형벌을 동원해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사실은 부러운 사람인지 그것도 아니면 부럽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한 오교수는 현재 구매자와 (성매매피해자를 제외한) 상대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여 '단순성매매(강요되지 않은, 합의된)'의 경우 여성과 남성과 (될 수 있으면 알선자도)를 모두 불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수의 대상 청소년 연령대를 16세로 낮추어 성숙한 외모에 깜빡 속아 성구매를 했던 피해남성(?)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사회가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성구매자(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언어로, (이미 남성권력으로 오염된) '상식'의 언어로 점잖게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과잉처벌, 과잉 법집행을 얘기하지만 형법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도, 여성의 노동권 확보도, 아닌 자유로운 성구매(알선)권인 것이다.

MISSION POSSIBLE

미션 파싸블 ...

2009.10.1 멋진 미션이 시작된다

접선 장소는 .. 서울역 광장

미션 수행은 .. 한개의 구성원과 시민

미션 방법은 .. 이름 요약을 만난다.

그들이 나눠주는 사탕을 받는다

사탕에 묶인 미션줄기를 풀친다

“미션을 해결한 당신은
나를 해방시킨다
차별에 맞서는 인권 요원!”



속이 부글 HOT NEWS

똑바로 해 이것들아, 우리가 고생이 많다

..에디터..리버

- 장자연 사건에 속이 부글부글

2009년 3월 6일. 꽃보다 남자 신드롬에 댕이 나가있을 그 무렵, 꽃남에 출연했던 신인배우 **장자연**씨가 자택해서 자살했다.

자살한지 3일만에 사건 담당 분당경찰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자살로 사건을 아주 급하게 종결시켜버렸다.

그러나 얼마 후 14일, 언론이 일명 '장자연 문건'을 공개했고, 그 때 야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 위메. 3일만에 단순자살로 종결짓더니 여론이 무섭진 무서웠는가비~ 이제 좀 제대로 수사를 하려나~ 하고 생각하기도 잠시. 3월 17일 언론사로부터 이름이 지워진 채로 문건을 받았다고 했던 경찰은 바로 다음날인 18일,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을 후~ 바꿔버렸다.

첫 번째 **번복**. 그러고는 4월 3일, 사건 전말에 대해 죄다 빠짐없이 밝히겠다고 경찰은 7시간만에 또 **번복**을 하신다. 우리는 번복 패밀리~ 모두 공개한다는 의미는 실명공개가 아니라나 뭐라나. 비판 여론이 암만 들끓어도 이 경찰 나으리들은 주 3회의 브리핑을 주 1회로 줄일 뿐, 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으셨다. 아마 그 때 분장실의 강선생께서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똑바로 해 이것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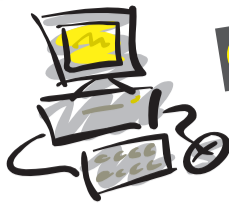
얼마 후 경찰이 그렇게 작아졌던 이유에 대해 알아버렸다.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기업인 조선일보 방사장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군.

그리고 유력 드라마 pd 등 감독들도. 조선일보 앞에서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 의원님.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뭘 죄가 있다고 명예훼손을 남발하시나. 이후 경찰의 중간발표는 더욱 기가 막히다. 대상자들이 사회활동으로 바쁜 분들이시라 조사일정을 잡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의자인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일본으로 도피 중이라 특별히 밝혀낸 것은 없고, 입건된 사람 중 언론인은 없다나 뭐라나... 시부령시부령... 몇 명을 입건, 참고인 중지를 하고는 입건되지 않은 언론인 1명과 감독 3명은 피의자 김대표가 체포될 때까지 내사중지란다. **아 진짜. 똑바로 해 이것들아~!**

그런데 6월 24일,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일본에서 체포되어 7월 3일 수사가 재개되었다. 뭔가 밝혀지겠지 했던 기대도 잠시, 경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역시나였다. 소속사 전대표인 김씨와 전매니저인 유씨만이 불구속 기소되었을 뿐. 거론되었던 유력(?) 인사들은 10명 전원 무혐의. **아, 제발 똑바로 해 이것들아!**

사건이 이렇게 되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몇 번인지도 모를 논평과 기자회견, 의견서를 냈다. 제출, 또 제출. 회견, 또 회견. UCC도 만들어보고, 서포터즈 활동도 제안하고. 참고로 이름 메일로 온 논평과 기자회견 등 관련 문건만 해도 몇십개다. **우리, 정말 고생이 많다~!**

아. 근데, 왠지 당분간은 계속 똑바로 해 이것들아~를 외치며 우리가 고생이 많다~며 죽으라 우리만 고생할 것 같다는 백발백중의 예감은 나만의 생각인가?



HOT ITEM "NO! 국가정보시스템"

전국유형예감 감시 아이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찾아주세요!

브랜드 런칭기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으로 브랜드명 변경하여 공략

..에디터..리버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란 웹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관리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다.

전자정부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구축, 보급되었고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복지정보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는 상태이다.

여성부 소관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은 위 시스템의 사용과 무관하였으나 최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에서도 위 시스템의 회계 부분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지역에 있는 상담소 및 시설들은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압력으로 인해 원치 않게 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2008년 전국 동사무소, 경찰서 등을 포함한 관공서와 복지시설과 정부의 개인정보 통합집적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도 보급하려 하였으나, 여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신변 안전 위협, 단체의 자율성 침해 등의 "반인권적인 구시대적 아이템"이라며 사용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전면거부팀은 "가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단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출되고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최대한 낮추어야 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내담자보다는 이들 정보를 집적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이다."며 여성피해자의 인권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보집적시스템에 반대하고 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 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中)

ELOOM CINEMA

속속 무책 이름 현장지원센터의 마지막 러브레터

물랐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이렇게 빨리 이별하게 될 줄을...

..에디터..리버

CHARACTER "내 이름 가지고 놀리면 디진다!" 박퇴짜 : [이름]

STORY

청량리 집결지를 거점으로 한 어느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4년여간 시행되고 있는 시점인 2008년 12월 31일 오후 5시경. 업무종료 1시간을 앞두고 살포시 팩스 하나가 들어온다. 팩스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중 탈업 계획이 있는 여성들에게 6개월간 지급하는(탈업후 6개월 연장) 46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해왔는데, 2009년부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러한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 종료로 간주하겠다."

앗, 이는 한 달 전인 11월경에 여성부가 던지시 제안한 바 있지만, 집결지 사업 수행 단체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던 지침변경안.

성매매 현장에서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들의 신원정보가 지자체를 통해 여성부에 보고된다면, 여성들은 46만원이라는 생계비와 낙인의 두려움을 교환해야 된단 말인가?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의 원칙으로 여성들을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돕겠다는 정부정책의 취지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사업참여 접근성을 가로막는 이 정책의 의도는?

문득, 뇌리에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으니...

지난 해, 이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업주들이 "여성단체들이 자활지원사업비를 물쓰듯이 쓰고 있고 성노동자들이 특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고, 여러 가지 감사 청구안 중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KBS감사청구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감사가 집행되었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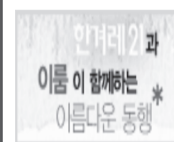
청춘막장 퇴짜. 지원사업과의 이별통보앞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넓은 자활지원확대라는 추진배경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외쳐보지만... 남은 시간은 3개월. 너무나 짧은 사업종료 시기는 정해지고, 이별은 피하지 못한다. "과연 내가 그녀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름 세상향해 하이킹! 밥주!!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3-10-020606 (예금주 : 박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농협 301-0020-2497-61 (예금주 : 박성매매인권행동 이름)

CMS는 02-953-6280, E-LOOM.ORG



함께레기 구독시 이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신청하시면 정기구독료의 20% 이름에 후원력립 가능!

이름에겐기후취향
 제이름
 미피진화기, 제피화기!
 "우체정복. (우유, 착유, 착유)
 이름이 왜우나 뜻이없어
 성폭력전진(성우매자가돌로
 가니 남성성우 우연한가
 남성중심주의의
 씨가마르리라)"